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으로 새로운 위훈 창조

희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김웅철소속부대에서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이 붐비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매진 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치고있는 희천발전소건설장에 위대한 영웅의 자욱을 새기신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인건설자들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뜨겁게 전해지고 있다.

설장을 찾은 조 선인민군 김웅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또다시 고무격려해주었다. 부대가 맡은 물길굴공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공사와

제수행에서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고 완공의 날을 앞당길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은 군위부대병사들, 우리는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조국청사

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세우고 위대한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 영웅적근위병들의 투쟁소식을 전한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영웅적근위병들

희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김웅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또다시 건설장에 모신 크나큰 영광과 감격을 안고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기세드높이 전진하고있다.

지난 4월 급이협한 산발을 넘어서 지하막장까지 찾은지 4년 만에 건설중인 희천발전소건설에서 남면저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영웅적근위병들에게 최상최대의 평가를 안겨주시었으니 병사들 모두가 기쁨과 행복의 눈물지며 격정속에 잠 못 들고있다.

진정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이 있어 근위병들은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자랑스러운 선구자로 그 이름 떨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과 군대는 우리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근위부대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오늘날도 영광의 그날을 잊지 못하고있다. 완공된 영원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동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소문없이 일떠세운 부대의 위훈을 거들 높여 평가해주시고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다시 만나자는 사랑과 믿음의 약속을 남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과 사랑을 새겨안고 발전소건설장에 달려와 천원천시 시련속에 가설 건물도 세우기 전에 착공의 첫삽을 박은 근위병들이다. 지난 4월 희천에서 만나자고 하신 사랑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부대의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남들같으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방대한 공사량을 짧은 기간에 해제진 근위부대병사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대고조의 선봉에서 내달리는 그들에게 또다시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었다.

발전소건설에서 승리의 통령을 더 높이 떨치리.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도 두가 이런 비상한 결의드높이 물길굴과 발전기실공사를 앞당겨 끝내고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 위한 총공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물길굴공사를 맡은 군관 리정남, 박영남, 박용원동무들 비롯한 군인건설자들이 굴뚝기와 확장공사를 남면저 끝낸 기세로 콘크리트복공사를 힘있게 다그칠 때였다. 그들은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확장공사과정에 나온 버럭우에서

휘를조립을 한 다음 경의 천정과 아래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치기를 동시에 내밀었다.

그런데 계획된 공사과정을 제기일내에 수행하자고 보니 강천정에 대한 피복공사가 미처 마쳐지지 못하였다. 면적이 넓다보니 높은 막장천정의 휘틀우에 혼잡함을 올려다 쳐넣는 일이 간단치 않았던것이다. 한삼, 두삼 혼합물을 퍼담아올리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높이는 일이 불가능해 보였다.

이런 전인발발의 투쟁정신은 발전기실공사에서도 높이 발휘되었다. 발전기실기초공사를 끝내고 건축공사를 할 때였다. 현장에서는 다른 곳에서 해체하여 운반해온 기중기를 시급히 설치해야 할 파일이 나왔다. 부대의 지휘관들과 기술인들은 땅에서 기중기부품들을 확대조립한 다음 들어올릴 안을 판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종전보다 능력이 3배나 되게 스키프를 개조하였다. 스키프의 능력이 높아짐으로써 물길굴복공사를 더욱 힘있게 다그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난관과 애로가 또다시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사갱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버럭이 갱안에 쌓여있어 세멘트와 모래, 목재 등 타입에 필요한 물품운반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었던것이다. 김수일소속부대의 군인건설

자들이 땅차의 대수를 늘였지만 운반속도는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 물품운반속도가 곧 피복공사속도라는것을 명심한 군인건설자들은 실정에 맞는 운반도구를 리용하여 물품운반을 연속적으로 내밀것을 결의하고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냈다. 그들은 자기 맡은 일이 끝나면 현장에 달려와 서로서로 어깨를 들이밀고 결사전을 벌려냈다.

이런 전인발발의 투쟁정신은 발전기실공사에서도 높이 발휘되었다. 발전기실기초공사를 끝내고 건축공사를 할 때였다. 현장에서는 다른 곳에서 해체하여 운반해온 기중기를 시급히 설치해야 할 파일이 나왔다. 부대의 지휘관들과 기술인들은 땅에서 기중기부품들을 확대조립한 다음 들어올릴 안을 판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종전보다 능력이 3배나 되게 스키프를 개조하였다. 스키프의 능력이 높아짐으로써 물길굴복공사를 더욱 힘있게 다그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난관과 애로가 또다시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사갱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버럭이 갱안에 쌓여있어 세멘트와 모래, 목재 등 타입에 필요한 물품운반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었던것이다. 김수일소속부대의 군인건설

자들이 땅차의 대수를 늘였지만 운반속도는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 물품운반속도가 곧 피복공사속도라는것을 명심한 군인건설자들은 실정에 맞는 운반도구를 리용하여 물품운반을 연속적으로 내밀것을 결의하고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냈다. 그들은 자기 맡은 일이 끝나면 현장에 달려와 서로서로 어깨를 들이밀고 결사전을 벌려냈다.

이런 전인발발의 투쟁정신은 발전기실공사에서도 높이 발휘되었다. 발전기실기초공사를 끝내고 건축공사를 할 때였다. 현장에서는 다른 곳에서 해체하여 운반해온 기중기를 시급히 설치해야 할 파일이 나왔다. 부대의 지휘관들과 기술인들은 땅에서 기중기부품들을 확대조립한 다음 들어올릴 안을 판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종전보다 능력이 3배나 되게 스키프를 개조하였다. 스키프의 능력이 높아짐으로써 물길굴복공사를 더욱 힘있게 다그칠 수 있었다.

크나큰 믿음, 감동, 높이 평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난한 곳이라고 해도 찾아가 믿음을 주고 정을 주며 사랑의 한풀에 안아 선군혁명동지로 내세워주고있습니다.》

또다시 받아안은 칭호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데 진기간 시종 만족함을 금치 못하시였다. 현지지도의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완공된 물길굴에 들어서시어 여기는 지하공간이라고, 대단하다고, 정말 큰일을 하였다고 거듭 칭찬해주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군인건설자들이 건설한 조압수조와 발전기실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발전소건설장이 한눈에 안겨오는 전경대에 오르시였다.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에 위대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인건설자들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뜨겁게 전해지고 있다.

보아주시며

수천m 되는 물길굴공사를 남면저 끝내고 희천발전소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근위병들이 얼마나 장하고 대견하시였으면 우리 장군님께서 이처럼 값높은 칭호를 또다시 안겨주시였을까.

위대한 선군령장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린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칭호를 받아안은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근위부대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펼쳐갈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병사들의 소묘작품도 보아주시며

현지지도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 병사들의 소묘작품을 보여드리는 영광과 행복의 시각에 이른 일이다.

군인건설자들의 량면과 정서가 방방하게 안겨오는 소묘작품들을 하나하나 보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인민군대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대학생》들이 많다고 웃음속에 말씀하시였다.

근위부대병사들이 발전소건설장에 수놓아온 위훈의 순간순간이 역사에 길이

은뜻이 병풍병풍 웃고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병사들이 어떤 마음을 심장속에 간직하였기에 그들처럼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는가를 소묘작품 《병사의 꿈》이 아름답고 소중한것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근위부대병사들의 백철불굴의 정신력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이 량면적인 소묘작품들을 깊은 감동속에 보고 또 보시며 그림들이 정말 잘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공사장이 자랑하는 혁신자들

군관 김광철동무는 이신작의 모범으로 대오를 이끌어가는 미더운 지휘관이다. 그는 늘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군인들을 새로운 위훈 창조에 불려들이고 발전기실 건설에 필요한 공제들을 제때에 보장함으로써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는데 한몫 단단히 하였다.

조기복부사관 김경철동무는 책임성능을 운전사이다. 그는 발전소건설장에 나온 첫날부터 자기 맡은 대형화물자동차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언제 한번 운전대를 놓은적이 없다. 찬바람부는 겨울철과 무더운 여름철에도, 눈이 오건 비가 오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빈차로도 오르기

힘든 령길을 하루에도 수십번 오르내리며 공사장에 위훈의 자욱을 수놓아가고 있다. 사관 안철영동무는 발전소건설장에 달려온 첫날부터 근위부대병사의 자각을 안고 공사과제수행에 이바지한 이름난 혁신자이다.

공사장에 어렵고 힘든 파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는 제나 앞장에서 남들보다 두뿔, 세뿔의 일감을 맡아 해 제끼고 하여 대원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사관 김정혁동무는 언제나 맡겨진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자이다.

그는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충하자!》는 구호를 심장깊이 새기고 누가 보지않고 맡은 일을 간직해 함으로써 공사과제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오늘날 그는 실천적모범을 보이며 혁신의 앞장에서 달려가고있다.

혁신적인 공법으로

다. 지휘관들이 기술혁신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불려들이니 성과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착암기를 언제 한번 손에 쥐어보지 못했던 병사들이 유능한 착암명수로 자라나 하루 6m, 최고 17m까지의 굴진실적을 기록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새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결과 높은 건설속도가 창조되어 부대

에서는 공사장적으로 제일먼저 기본물길도강굴진을 성과적으로 끝냈으며 공사에 진입한 때로부터 1년 남짓한 기간에 맡은 물길굴공사와 조압수조공사, 발전기실건축공사를 성과적으로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을 체질화한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이렇듯 집체적지혜를 합쳐 합리적인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이고 높은 공사속도를 창조함으로써 영웅적근위부대의 위력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



현지보도

완공의 그날을 향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량판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보다 위화찬란한 기개를 띠고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병사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는 압력철판로 고정지지대타입전투장이다. 삼날마다 불꽃이 일고 맞들이마다면 날개가 돌았다. 안철영소대가 불이 번쩍 나게 팔레와 세멘트를 뒤섞으면 김철남소대가 눈감찰할 사이에 날라다 혼합기에 넣는다. 잘 이겨진 혼합물이 철판로 위에 놓인 벨트우로 쉬임 없이 쏟아져내린다. 벨트를 따라 흘러내린 혼합물은 박상국소대가 걸짜게 처리한다. 웅—웅—경쾌한 소리를 내며 진동다짐기가 걸쭉한 혼합물을 부지런히 휘젓는다.

박상국동무의 지휘에 따라는 떨미있는 병사들이 세멘트 혼합물을 째짜게 옮겨놓는다. 팔레가 예상외로 빨리 움직인다. 이때 경적소리를 울리며 팔레를 가득 실은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연속 들이닥친다. 순식간에 팔레산이 생겨나자 병사들이 더욱 기세를 올린다. 잠깐사이 콘크리트혼합물이 철판로 덮여버렸다. 허나 누구도 만족을 모른다. 열정에 넘쳐 일하는 병사들의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군관 정태복동무는 말한다.

《지금 군인건설자들도두가 위대한 장군님을 또다시 발전소건설장에 모신 영광과 긍지를 안고 총돌격전을 벌리고있습니다. 이런 기세로 나간다면 압력철판로 고정지지대타입공사도 멀지 않아 끝나게 될것입니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전투는 더욱 고조를 이룬다. 날은 추워도 모두가 이마에 내뿜는 땀방울을 흘리며 사이들이 뛰어나며 일손을 다그친다. 드디어 마지막합동이 완공된다. 열마후 마지막공정을 맡은 타이핑들이 철판로우에 불씩 나타냈다. 또 하나의 고정지지대타입전투가 드디어 마무리된 것이다. 《오늘계획을 150% 넘쳐 수행한 전투원들을 축하!》 전투장에 이런 속보가 나붙는다. 쪽쪽 뻗어간 압력철판로를 믿음직하게 받쳐주는 고정지지대물, 그것은 순간의 답보나 만족도 모르는 근위병들의 불굴의 의지를 그대로 전해주는듯하다. 랑림산맥의 칼바람우에 또 하루 기적과 위훈의 자욱을 새겨놓은 이면 병사들이 있어 완공의 날은 하루하루 앞당겨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건설에서 속도전을 벌리려면 기계화, 현대화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해 3월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구상을 받들고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달려와 한창한 산중에 배낭을 풀고놓는 근위부대병사들의 잠드리는 날마다. 하지만 육망과 독심만으로는 어렵도 없는 공사과제였다. 지휘관들이 사색과 탐구를

우리에게는 가능만이 있다

올해에 벌써 두차례나 위대한 장군님을 전투장에 모시고 크나큰 기쁨을 드린 우리 근위병들의 사기는 지금 하늘을 찌를듯 높다. 랑림산맥의 칼바람에 첫 정대를 내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물길굴공사를 전부 끝낸 우리 부대 전투원들이다. 결사관철! 이 신념의 맹세로 심장이 불타는 우리 근위병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오직 가능만이 있다. 이것은 지난해 3월 랑림산맥에 첫 자욱을 짚은 우리

부대병사들이 단계별로 높은 세운 목표들을 드림없이 점령하면서 가슴깊이 새긴 좌우명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매진 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치고있는 희천발전소건설장에 위대한 영웅의 자욱을 새기신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인건설자들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뜨겁게 전해지고 있다.

완공으로써 희천발전소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낀것이 그리도 대견하시어 대단한 부대라는 칭호를 안겨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가슴이 젖어든다. 우리들은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온 나라가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작전과 지휘를 더욱 짜고들어 앞으로 남은 파제를 불과 몇달사이에 와닥닥 해결함으로써 언제나 앞서나가는 부대, 대단한 부대의 영예를 계속 펼쳐나갈것이다. 조선인민군 군관 윤일남



김광철동무

김경철동무

안철영동무

김정혁동무

